나주~광주 대중교통 환승할인 실시

7월19일부터 교통카드 이용시 50% 혜택

나주와 광주를 오가는 대중교통에 오는 7월19일부터 환승할인제도가 적용된다.

나주시는 16일 "나주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광주에 도착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갈아탈 경우 요금의 50%를 할인 받는 광역대중교통 환승할인제를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나주와 광주를 왕복 운행하는 나주교통과 광신여객(160번) 등 나주시내버스에 대해서만 하차 후 30분 이내 1회 환승이 가능했었다.

환승할인 혜택은 ▲반드시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하고 ▲내릴 때 마다 하차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해야 하며 ▲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고 내릴 경우 할인된 금액이 추가되는 패널티를 적용받는다.

광역대중교통 환승할인제는 임성훈 나주시장이 지난 2011년 9월 광주·전남광역행정협의회에서 제안해 광주시 주변 나주시 등 인근 5개 시군이 공동 합의한 사항으로, 시·군 상호 대중교통 간에 환승이 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나주시 이상목 경제교통과장은 "광역대중교통 환승할인제가 시행되면 광주시와 사실상 동일 생활권인 나주 시민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함께 미비사항 등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소방서에 간 병아리들

담양소방서 '눈높이 안전교육'

16일 전남과학대학 병설유치원생 50여명이 담양소방서를 찾아 소방체험과 함께 생활 안전에 대한 눈높이 교육을 받았다.〈사진〉

이번 체험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시됐으며, 특히 환자발생시 대처 요령, 화재발생 시 대피 방법, 소화기 사용, 소방관 복장 등을 통해 호기심 어린 동심들에게 소방관들의 역할을 알렸다. 또 소방차에 직접 시승해 소방관처럼 소방호스를 들고 방수체험을 하는 등 일일 소방관 체험도 이뤄졌다.

담양소방서 김남중 대응단장은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소방교육은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균핵병 퇴치 머리 맞댄 장성군 지난 13일 김양수 장성군수 등 30여명이 균핵병으로 시름하고 있는 관내 오디농가를 찾아 '오디 균핵병 방제시험 현장 평가회'를 가졌다. 장성군 내 오디농가는 모두 221곳으로, 67ha에서 연간 오디 335t을 생산해 2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kwangju.co.kr

평양예술단 공연 보고 청자 빚고

강진청자축제 83개 프로그램 확정

오는 7월 27일 개막하는 '제41회 강진청자축제'의 행사가 83개 프로그램으로 확정됐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열어 올해 41회째를 맞는 강진청자축제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에서 강진군은 알차고 내실 있는 축제, 관광객 편의와 볼거리 시설 확충, 청자매출 증대,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라는 올해 축제의 기본 방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축제에서 강진청자 전시판매관 운영 등 기획행사 19개, 대형 청자 조형물 설치 등 전시행사 8종, 평양예술단 공연 등 공연행사 13개, 청자빚기 체험 등 체험행사 19개, 다문화가정 전통 혼례식 등 부대행사 24개 등 모두 83개 행사로 구성된 세부 실행 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민선 5기 3년 성과와 과제

부채 219억원 줄여 '재정 우수'

나주시

미래산단 中 투자 유치

지역갈등 해소 등 시급

민선 5기 1년여를 남겨둔 16일 임성훈 나주시장은 혁신도시의 순조로운 건설과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산업활성화, 교육부문 투자를 통한 실력 향상, 천연색 산업 추진이나 농업정책 및 복지 내실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 속에 혁신도시건설이 순조롭게 완성돼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 나주시는 그 이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기업인 출신으로 '작으면서도 내실 있는 시정 운영'에 힘쓴 결과 취임 당시 583억원에 달했던 부채도 지난 1/4분기까지 364억원으로 줄이면서 지난 2011년에는 지방재정분석 우수 지자체로 기관표창을 받기도 했다. 시정에 '경영'을 접목시켜 일자리 창출, 왕성한 투자유치 등도 해냈다.

우여곡절을 겪었던 미래산업단지 조성 문제와 관련 최근 중국 측과 '한·중농업융합단지' 투자협약을 이끌어내면서 혁신도시 연관기업 배후 산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었다.

도농복합도시라는 점에서 공동육묘장과 광역방제 등 과학영농정책을 도입하고,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들의 영농비 절감 등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실시했으며, 소득 향상을 위해선 유통체계 개선, 친환경농업화, 고소득 품목 지원 등을 내걸었다.

영산강사업 이후 관광인프라 구축과 각종 체험장 확대, 영산포홍어거리 주차장 단장 등을 통해 나주에 새로운 활기도 불어넣고 있다.

임 시장은 "무엇보다 이번 민선 5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감소하기만 했던 인구가 증가세로 반전된 것"이라며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장학금 지원 및 해외연수 실시 등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학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가장 큰 요인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주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갈등과 주민 간 갈등해소는 가장 시급히 풀어야할 최대 당면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지역갈등 요소를 파악해 서둘러 조정하고 시민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주발전에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반남고분군, 천연염색문화관, 백호문학관, 영산강 죽산보 등 지역 주요 관광자원을 한데 엮어 '머무르는 나주'로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영암군, 휴가철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영암군이 하계 휴가철에 대비,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16일 영암군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단속과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공공근로 인력으로 구성된 정비반을 편성,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며, 육교, 전주 등 공공시설물에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휴가철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일등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올 들어 불법광고물 2200여 개를 정비한 바 있다. /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전북

버스타고 서남권 관광 한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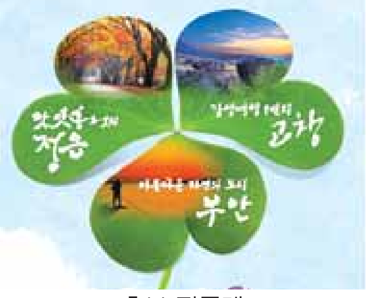
정읍·고창·부안 연말까지 맛·명소여행 운영

전북 서남권에 있는 정읍시·고창군·부안군의 명소, 맛, 멋을 버스 한 대를 타고 만끽하게 됐다.

이들 3개 시군은 15일부터 연말까지 전북 서남권 관광프로그램인 '행복을 드리는 테마여행'을 진행한다.

관광객들은 오전 10시 30분에 대형버스로 정읍역을 출발해 고창의 고인돌유적지와 읍성, 부안의 청자박물관과 채석강을 보고 정읍에서 우도농악전수관과 전통가옥 및 솔티떡을 체험한다.

버스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함께 타 각 문화유적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고 여행 편의를 돕는다. 하루 여행에 드는 비용은 1인당 버스비 8000원, 식비 1만원 등 1만8000원.



홍보 팜플렛

3개 시군은 여행 만족도를 조사해 8월부터 1박2일 여행코스 운영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들 지자체는 관광객 유치와 새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관광프로그램과 버스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고창군이 14일 서울 롯데백화점 노원점에서 연 '고창 황토배기 명품수박 경매'에서 농민 유신종씨왼쪽에서 네번째)의 수박이 30만원에 낙찰됐다. 이강수 고창군수(왼쪽 세번째)가 유씨와 대상 및 금상 수상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 수박 한통에 30만원

서울 롯데백화점 '황토배기 수박' 경매서 최고가 낙찰

30만원짜리 수박이 팔려나갔다.

고창군은 16일 "지난 13일 서울 롯데백화점 노원점에서 열린 제4회 고창군 황토배기 명품수박 출시전에서 탑4호로 무장면 유신종씨 수박(당도 13.1brix)이 선정돼 경매가 30만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탑4호 수박 구매자는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하는 최경희씨로 병석에 계신 부친의 쾌유를 위해 구입했다며, 명품 수박을 품에 안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목포로 출발했다.

대상은 성내면 김종일씨 27만원(구매자 서울 노원구 손점숙), 금상은 공음면 유봉천씨 21만원(구매자 서울 서초구 최섭)의 경매가를 기록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단체, 농업연구·지도전문가, 유통·홍보전문가, 대학교수 및 육종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선발위원과 소비자들이 참여해 직접 맛을 보고 품질을 평가했다.

고창군은 최고품질 수박 생산을 위해 정식부터 수확까지 농촌진흥청,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전문가들이 기술을 지원했고, (주)황토배기유통의 선별시스템을 적용 당도 12brix 이상, 중량 8.5㎏ 내외, 수박 고유 빛깔을 가진 정형과만을 선별하여 탑 과채 스티커를 부착, 유통시키고 있다.

특히, 이날 고창 관내 30농가가 31ha 규모로 조성한 명품수박 단지에서 재배한 20만통 중에서 선별한 100통을 프리미엄급 수박으로 통당 10만원에 판매했음에도 준비된 전량이 매진돼 고창수박의 명성을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

7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된 고창수박은 6월 초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돼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의 계기가 된 농·특산물 알리기 행사를 통해 대도시 주민의 소비패턴을 읽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농특산물 판매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전주·완주 통합' 21·22일 사전투표

주민투표는 26일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26일)에 앞서 21~22일 사전투표제가 시행된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에는 사전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돼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전투표제는 주민투표 당일 부득이하게 참여를 하지 못하는 투표권자를 위해 마련됐다.

사전투표를 하는 투표권자는 21일이나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소가 설치된 13개 읍·면사무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주민투표일에는 투표 시간과 장소가 늘어난다.

26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내 33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33.3% 이상이어야 개표할 수 있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한 것으로 나오면 통합이 확정된다.

이 때문에 완주군은 투표율을 높이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일단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 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임정엽 완주군수는 최근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반대 측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투표율이 높아져 개표 기준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완주군은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5% 안팎을 끌어올려 최종 투표율이 40%대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kwangju.co.kr

단신

순창 용암·세룡마을 오디 수확체험 인기

순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를 위해 순창군이 운영하는 농산물 수확체험이 도시주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16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동안 인계면 용암마을과 세룡마을에는 도시민 오디수확 체험이 있었다. 14일은 서울 부녀회에서 35명이, 15일에는 고양시 일산동구 도시민 40명이 이곳을 찾아 오디를 직접 따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군은 올해 관련예산 8000만원을 확보해 1회당 60만원을 지원, 133회 7000여명을 대상으로 수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부안군, 올 문화예술사업 2억3500만원 지원

부안군은 16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전라북도 상주단체 지원사업 등 5개 프로그램에 모두 2억350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단'은 소외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오케스트라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000만원을 지원받아 진행 중이다. 또 올해 처음 실시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가족오케스트라 교육은 5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다. 문예기금 3960만원 등 6600만원을 들여 우수공연으로 선정된 유인촌의 파우스트 괴테와 구노의 만남, 뻥짝 뮤지컬 군수선거, 옥탑방 고양이도 공연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부안=장재용기자 jjy0681@

남원시, 귀농연수생 현장교육 13곳서 진행

남원시는 16일 "귀농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교육이 오미자, 사과, 포도, 고사리 등 6개 품목에 걸쳐 13곳의 지역 농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실습교육을 받는 동안 귀농연수생에게 매달 교육 실습비 80만원을 지급하며, 선도농가는 40만원의 멘토수당을 받는다. 군은 귀농 초보자가 선도농가에 입주해 영농기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고 협력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성공적으로 귀농 정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정읍시,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 이달부터 확대

정읍시는 16일 "산모와 신생아에게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을 이달부터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정에만 지원했지만, 소득이 이를 초과하는 장애인, 희귀 난치성 질환자, 한 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 이상 출산 가정으로 늘린 것이다.

이 사업은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도우미를 보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며 집안일을 해주는 것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